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alibrite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calibrite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겟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겟
3. 그레이 밸런스 타겟
4. 화이트 밸런스 타겟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PRVKE Zip

WANDRD

PRVKE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일상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WANDER MORE
WORRY LESS

PRVKE Pocket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대) | F.02.742-3387
브랜드샵_T.02.3668-3109,3181 |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ki.co.kr

포토키오스크

모두한컷

졸업앨범 전용

출력부



촬영부



이동 편의성이 좋은 키오스크
분리 조립이 쉽고 가벼워
승용차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졸업앨범 컨셉촬영

졸업앨범에 셀프촬영 인생사진으로
컨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 수익창출

학교 · 기업행사, 돌잔치, 예식장 등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파란소프트"를 검색 후 채널추가 > 채팅하기



파란소프트



가격 및 구입 문의

051-624-5075

E-mail. paransoft@naver.com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Seoul



글로벌 성장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Korea



기술혁신명품소기업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삽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뜨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www.gana2000.co.kr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EOS R6 EOS R5 EOS R EOS R8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승호

3 2026
VOL. 578

PRO portrait

발행인 겸 편집인

발행인 이경희 협회장
발행일 2026년 3월 1일
창간일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대)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편집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인쇄 천상영(주식회사 도서출판 더블유)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KPPA's 협회소식

제40대 보궐 회장 후보 등록

이경희 서울지회장이 후보 등록해 ...

10



< 제목 : 고희 >

< 작가노트 >

탐미(耽美)의 끝만을 쫓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
내가 느낀 그 찰나의 매혹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나는 여전히 그 감정의 이름을 찾는 중이다.

< 작가 : 이정훈 >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
- 現 너를봄사진관대표

KPPA's 협회소식

- 10 선거관리 위원회, 제40대 보궐 회장 후보 등록
- 11 선거공보물 - 회장후보 이경희

14 KPPA's 인상 순수 사/진/전

8 www.kppa.co.kr

CONTENTS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Kppa's 지회소식

- 26 서울지회 - 임시 대의원총회
- 28 부산지회 - '사진 기자재 전시 & 솔루션 안내' 성황리 개최...
- 30 인천지회 -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면담
- 32 대구지회 - 2025 대구지회 하계 촬영대회

KPPA's 풍경사진 사/진/전

Kppa's 타임머신

Kppa's 탐방

- 48 한국인상사진연구회

Kppa's EDU

- 50 왜 당신의 진심은 매번 오해받을까?

선거관리 위원회 제40대 보궐 회장 후보 등록

이경희 서울지회장이 후보 등록해...

취재 : 변준섭 사무처장



지난 2월 19일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한강월)는 협회 회관에서 제40대 보궐 회장을 선출하는 후보 등록 마감 하였다.

후보 마감일 선관위는 한강월 선거관리위원장, 김상렬 선거관리위원, 김선식 선거관리위원, 류태열 선거관리위원, 박용호 선거관리위원, 이대원 선거관리위원이 배석 하였다.

보궐선거는 1월 8일 정기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병재 회장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집행부는 1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전병재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부는 정관 제16조에 의거 이봉희 수석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26년 1월 29일 임시 이사회와 정기대의원총회를 하였다.

정기대의원 총회 결과 2월 19일까지 후보 등록, 3월 20일 보궐 회장 선출건이 총회 의결되었다.

2월 19일 선관위 제2차 회의 중 16시 40분경 이경희 서울지회 지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들의 면밀하게 검토하여 후보 등록을 마감하였다.

협회소식. 2

〈선거공보물 -회장후보 이경희〉

“사진가의 자부심을 되찾고,
수익이 보장되는
강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장후보 이경희
(사)한국프로사진협회

I.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후보 이경희입니다.

대한민국 사진 역사의 산증인인 우리 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앞에서 있습니다.

스마트 폰의 보급, AI 보정 기술의 확산, 그리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가형 셀프 사진관까지 우리의 전문 영역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진전문성 강화**”와 “**회원 실익 증대**”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 우리 협회를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우뚝 세우고자 합니다.

II. 4대 핵심 공약 (The Big 4 Vision)

1. [권익 보호] 사진 자격증 제도 법제화 및 공신력 강화

사진전문가들의 기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사진진흥법 추진 :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합동 입법발의 및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입법통과후를 준비하고 사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 추진 :

민간 자격 수준을 넘어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사진 전문가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화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시장 침탈 대응 :

대형 플랫폼이나 비전문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는 법률 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2. [미래 준비] AI 및 디지털 전환(DX) 교육 지원 센터 설립

변화하는 기술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AI 리터칭 및 입체복원교육 :

회원들이 AI 보정 도구와 동영상 촬영/편집 기술을 습득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교육 및 협회 상설교육장을 상설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및 NFT 스튜디오 구축 :

가상공간에서의 사진 판매 및 전시를 지원하여 회원들의 수익 루트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공동 구매 플랫폼 활성화 :

소모품(인화지, 잉크 등)과 장비의 공동 구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3. [성장 동력] '회원 배가 운동' 및 소통하는 젊은 협회

협회의 힘은 주인인 회원들로부터 나옵니다.

신규 회원 유입 프로그램 :

청년 사진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가입 혜택

을 강화하여 협회의 연령대를 낮추고 역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지부 활성화 기금 조성 :

협회 중심에서 벗어나 각 지역 지회, 지부가 자립적으로 활동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앱(APP) 개발 :

협회의 정책과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건의할 수 있는 모바일 소통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4. [수익 창출] 공적 사업 확대 및 범국민 캠페인 전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거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가족사진 캠페인 정례화 :

'가족의 소중함은 사진관에서'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잠재 고객을 스튜디오로 유인하겠습니다.

지자체 바우처 사업 연계 :

취약계층 영정사진(장수사진), 다문화 가정 가족사진 촬영, 625참전용사 영웅사진, 월남전 용사 영웅사진 등 정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부, 환경부...)

지자체 예산 사업을 협회가 수주, MOU협력으로 지회, 지부, 회원들에게 배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진 지원 사업 :

정부의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 업체들의 제품 사진 촬영을 협회 회원들이 전담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Ⅲ. 희망찬 2026년을 만들어가는 협회의 미래

"회원이 수익을 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진문화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사명입니다."

개인이 명예가 아닌 협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을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여러분이

셔터를 누를 때 느끼는 자부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Ⅳ. 맺음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지키는 힘은 전통에 있지만, 70년의 미래를 만드는 힘은 사진시장의 도전과 변화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을 준비하였습니다.

발로 뛰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행동하겠습니다.대한민국 사진가의 당당한 내일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제40대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후보 이경희 배상



▪ 제 목 : 만삭

▪ 작가소개 : 강민정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정회원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現 강언니스넵 대표



▪ 제 목 : 본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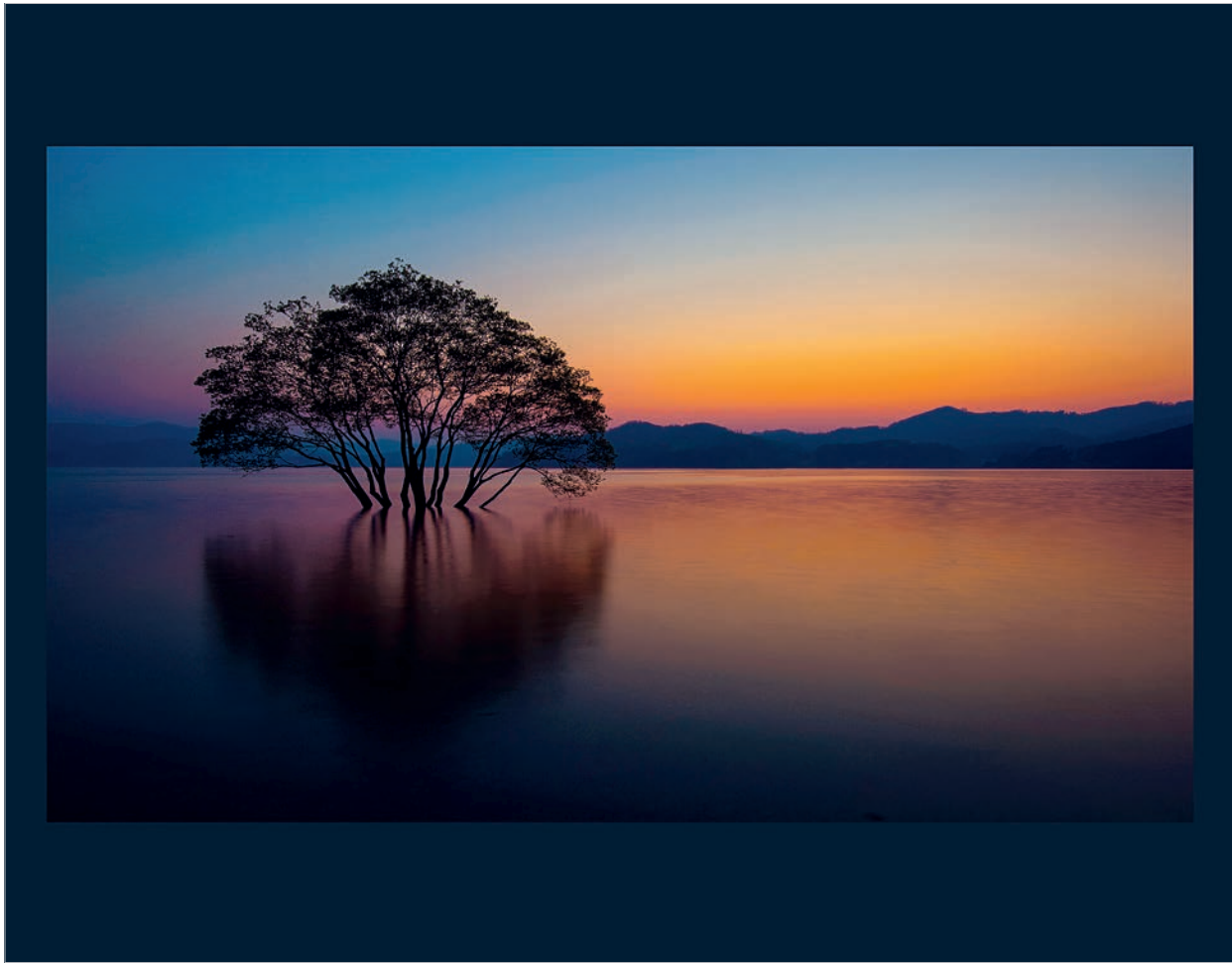


- 제 목 : Blue Wave
- 작가노트 : 고요함과 움직임이 공존하는 순간을 블루 톤의 파동으로 담아냈다.
- 작가소개 : 류수민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現 감동사진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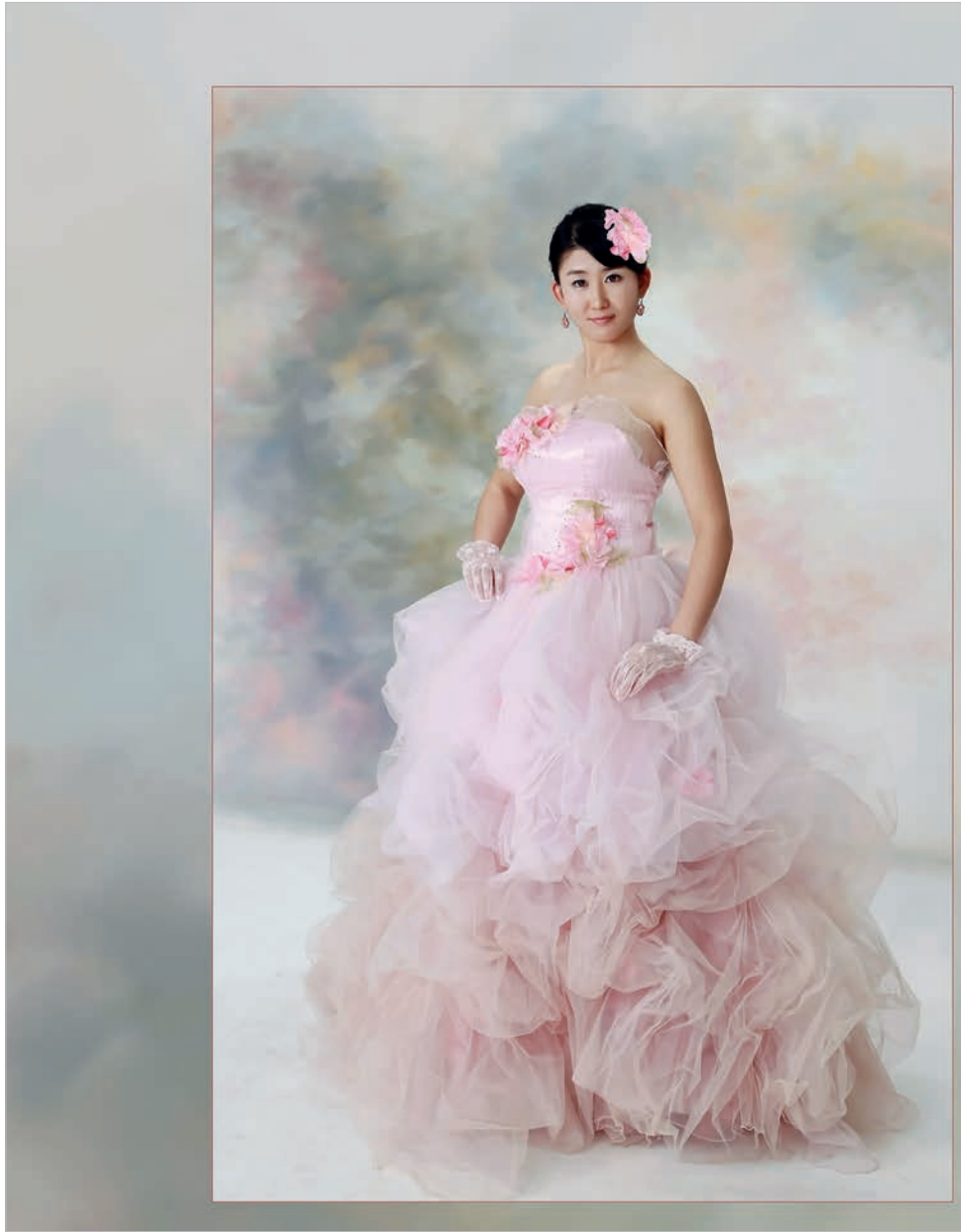
- **제 목** : 웨딩드레스를 지켜라
- **작가노트** : 가장 빛나는 날을 위해, 귀여운 가족들이 먼저 드레스를 지키고 있다.

- **작가이력** : 류수민 추천작가
 - 2012년 대한민국다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상 수상
 - 2013년 월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사진작가부문대상
 - 2015년 대한민국 스타예술대상 <사진부문 수상>
 - 2015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Medal
 - 2016년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Korea 작품상 수상



▪ 제 목 : park eungeung_photographic_#1_Calm

- 작가소개 : 박응태 추천작가
- PPA MASTER PHOTOGRAPHER
 - 現 예산중앙스튜디오 대표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예산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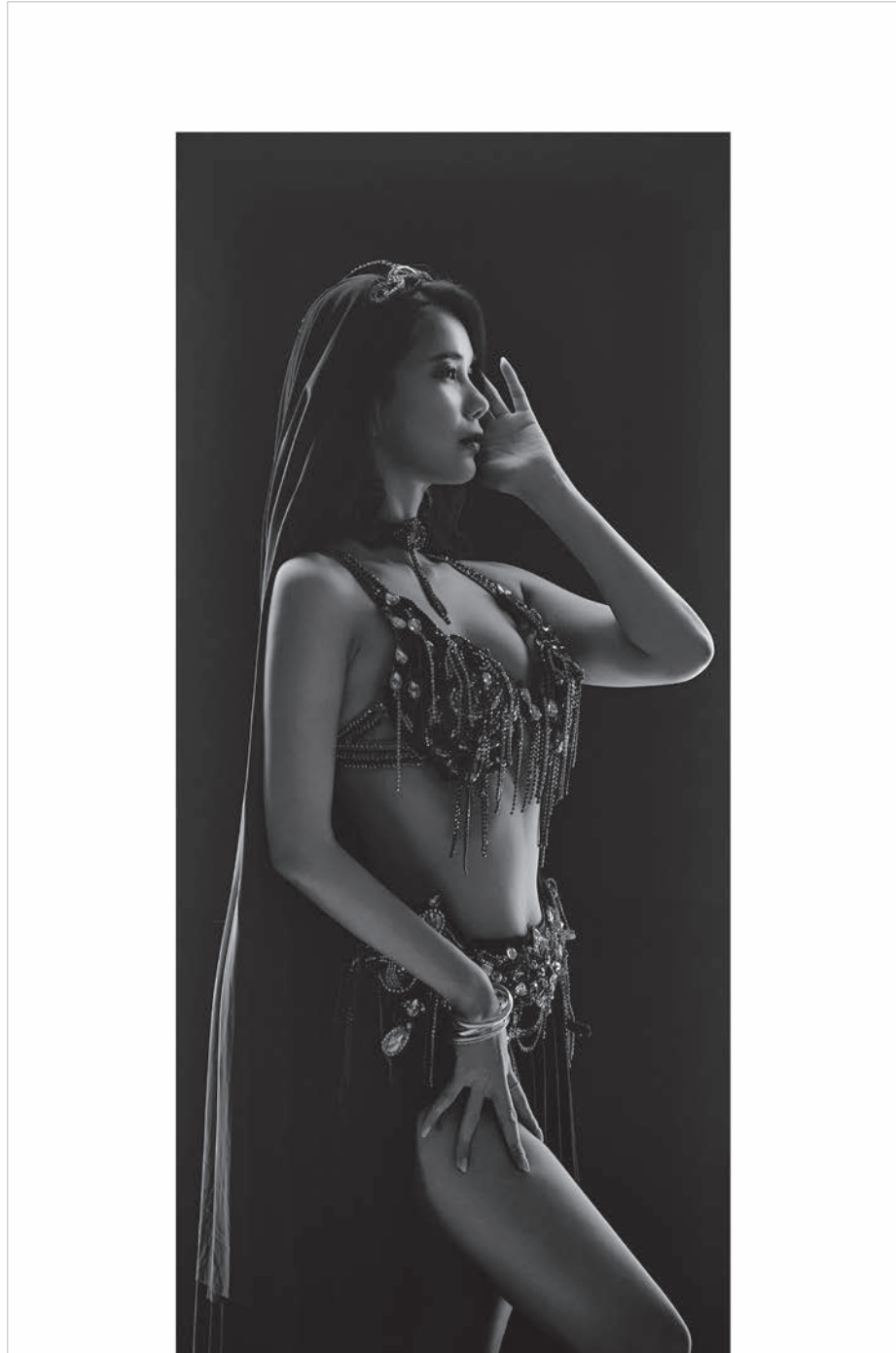
▪ 제 목 : Spring Perfume



- **제 목** : White bath(하얀목욕)
- **작가노트** : 이 작업은 순백의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순수함과 위로의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다
- **작가소개** : 방상은(Bang Sangeun) 추천작가
 - PPA MASTER
 - 전자공학사, 사진영상학사, 상담심리학사
 - 시각디자인전공중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現 모델스튜디오 대표



- **제 목** : Grace Shaped by Time(세월이 빛은 우아함)
- **작가노트** : 나는 이 장면을 통해 '늙음'이 끝이 아닌, 가장 깊이 있는 표현의 시작임을 말하고자 했다.
- **작가이력** :
 - 문경사회복지관장 봉사상 수상
 - 중앙대학교 산교원장 공로상수상
 - PPK 작품상 수상
 - PPA BRONZE MEDAL 2회 수상
 - PPA GOLD MEDAL 1회 수상



▪ 제 목 : 고희 |

▪ 작가소개 : 이정훈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
- 現 너를봄사진관대표



▪ 제 목 : 고혹 II

▪ 작가노트 : 탐미(耽美)의 끝만을 쫓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
분명 선명한 감정을 품고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의 떨림을 단어로 문장으로로 정의하려 하면 늘 막막함에 부딪히곤 한다.

내가 느낀 그 찰나의 매혹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나는 여전히 그 감정의 이름을 찾는 중이다.



▪ 제 목 : 한복 I

▪ 작가소개 : 이정희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명예지부장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이사
- 現 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 제 목 : 한복 II

▪ 작가노트 : 우리의 한복에 담긴 어머니의 삶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당신의 삶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잠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와 세상을 지키고 만들었던 모든 어머니의 품에 초대합니다.

서울지회 임시 대의원총회

서울지회장 선출(추천) 건 대의원총회 소집

취재: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사진: 송진한 서울지회 사무차장



▲ 서울선관위원장 김천식

서울지회는 지난 3월 13일 사진회관에서 지회 운영 규정 제16조 1항에 의거 정기총회 소집하고 새로운 지회장 선출(추천)을 위해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협회장 후보로 등록된 이경희 후보자는 "사진가의 자부심을

서울지회 대의원들은 오후 5시에 택이네(사진회관 1층)에서 석식을 하고 6시 임시 총회를 하였다.



▲ 박용호 고문 격려사

한장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박용호 서울지회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박용호 고문은 인사말에서 이경희 후보자에게 열심히 잘

되찾고, 수익이 보장되는 강한 협회를 만들고 사진 전문성 강화”와 “회원 실익 증대”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 우리 협회를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우뚝 세우고자 하는 소신을 밝혔다.

김천식 서울지회 선관위원장(본 협회 수석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신건정 서울지회 부지회장을 서울지회장으로 추천 및 의결을 하였다.

김천식 선관위원장은 제34차 서울특별시지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려 만장일치로 신건정 지회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서울지회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였다.



▲ 조형준 강사 강의모습

총회에 이어 조형준 강사의 “AI를 활용한 리터칭”을 입체 복권 사진 전문가 피드백강좌가 열렸으며,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사진 기술을 선보였다.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큰 호응을 얻었다.



▲ 이경희 협회장 후보 인사말

부산지회

'사진 기자재 전시 & 솔루션 안내' 성황리 개최...

실무 중심 정보 교류의 장 마련

취재: 이광호 부산지회사무국장

2026년 2월 23일 부산 사상구 SMDV 강의장에서 사진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진 기자재 전시 & 솔루션 안내' 행사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제품의 성능과 활용도를 확인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진 장비 및 솔루션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진작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진행된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40분씩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전시 관람으로 시작됐으며, SMDV를 비롯해 Canon, Nikon, Epson 등 주요 브랜드의 다양한 기자재가 전시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SMDV 김정대 강사가 조명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신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며 촬영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Paransoft 정왕재 대표가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 안내 및 엡손 장비를 소개했다.



▲ 수강하는 회원모습



▲ 이승호 강사 열강

세 번째 강의에서는 Canon 대전점 이승호 대표가 카메라 기능과 현장 중심의 촬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Evoto 한철진 강사가 시 기반 사진 보정 기술을 소개하며 최신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촬영부터 보정, 출력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진행되어 실무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강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의 질문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Canon은 현장에서 카메라 점검 및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참여업체들의 다양한 혜택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주최하고 부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주관, SMDV가 후원하여 진행됐다.

부산지회 박재영 지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진 산업 환경 속에서 회원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의 장을 통해 지역 사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재관람

한편,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장비 전시를 넘어 실무 중심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함께 이끈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에는 다양한 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교육을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서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고, 향후 지역별 유사 행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진 기자재 전시 & 솔루션 안내

2026년 2월 23일(월)
SMDV 강의장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532)

<p style="margin: 0;">전시 : 12시~</p> <p style="margin: 0; font-size: small;">* 장여업체 특가 제공 *</p>	<p style="margin: 0;">강의</p> <p style="margin: 0; font-size: x-small;">(강의별 약40분씩 진행)</p> <p style="margin: 0;">1시 SMDV</p> <p style="margin: 0;">2시 엡스&파란소프트</p> <p style="margin: 0;">3시 캐논</p> <p style="margin: 0;">4시 이보토</p>
---	---

SMDV

Canon

Nikon

EPSON

EVoto

PARANSOFT

-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버스126번, (삼락동역 하차)

주차안내 : SMDV 고객전용 주차장

만차시, 삼락재점거리 공영주차장

주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주관 : 부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후원 : SMDV

* 캐논, 장비 점검 및 클리닝 서비스

▲ 기재관람

인천지회,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면담

사진진흥법 통과 기대감 높아져

취재: 홍춘석 인천지회 주재기자



지난 2월 22일, 한국프로사진협회 정태민 부회장과 김학규 인천지회장을 비롯한 인천지회 고문과 임원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사진진흥법 추진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사진진흥법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김교흥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사진진흥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가장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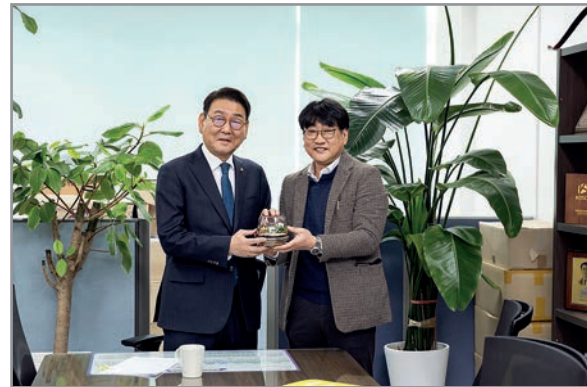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들은 면담 자리에서 사진 산업과 사진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진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사진진흥법이 매우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류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 사진진흥법 설명하는 정태민 부회장



▲ 김교흥 의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정태민 부회장

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직접 여야 여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진흥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진진흥법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문화예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통화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과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법안이 빠르게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약속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사진진흥법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면담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김교흥 의원과 함께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했으며, 정태민 부회장은 감사의 뜻을 담아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사진진흥법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 회원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2025 대구지회 하계 촬영대회

금상: 안중운 작가
은상: 박분희, 이시우 작가

글: 박분희 대구사무국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는 지난해 2025년 6월 6일에 하계 연수 및 촬영대회가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서 회원들의 뜨거운 창작 열기가 빛난 '2025 하계 연수 및 촬영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려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촬영대회에서 회원들은 프로페셔널한 시선과 예술적 집념으로 매 순간을 프레임에 담아내며 깊이 있는 작품 활동에 매진 하였고 이번 대회는 단순히 기술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고 배우는 교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야외라는 열린 무대에서 모델은 자연과 하나 되어 움직였고, 작가들은 그 흐름을 존중하며 기록했습니다. 촬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진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임을 실감한 순간이었고, 단순한 연수대회를 넘어 사진 예술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고, 대구지회의 결속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심사는 지난 2025년 9월 24일 협회회관에서 김선식 심사위원장, 이동기 심사위원, 임병학 심사위원(40대 작가제도 위원장)이 심사를 하였으며,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일 시 : 2025년 9월 24일(10:00)

• 장 소 : 사진회관

• 심사위원장 : 김선식

• 심 사 위 원 : 이동기, 임병학

입상(선)명	스튜디오명	성 명	제 목	소 속
금상	비쥬브라이드	안중운	그녀는 아름답다2	
은상	팬텀	박분희	내마음2	
	별빛느름빌리지	이시우	사색	
동상	차밍스튜디오	신원재	포즈	
	온미디어	박재은	포즈	
	백호사진관	안규석	여심	
가작	아진스튜디오	조춘근	시간의 흐름	
	남양사진관	조대희	햇살을 두른 미소	
	삼원	박병화	아름다운 그녀 3	
	포토데이스튜디오	박수원	울동1	
	노상권 스튜디오	노상권	도도한 그녀	
입선		도경석	여인2	
	성일스튜디오	허성구	트리1	
	경대	신정식	윙크	
	포토코리아스튜디오	이창혁	갈망	
	해성스튜디오	김대홍	요염1	
	스마일포토	오상석	여인2	
	포토다이믹	김창혁	포즈1	
	H스튜디오	김혁상	기다림	
	아장아장스튜디오	김영지	어느날 오후	
	세운디지털포토샵	이삼섭	호수가 두여인	
	무궁화사진관	이채일	포즈	
	지엘상사	이광수	나무와 여인	



▪ 제 목 : 그녀는 아름답다.2

▪ 작가소개 : 안종훈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수석 부지회장
- 브라이드메르시 대표



안 종 훈 작가





- **작가소개 :** 박분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사무국장
 - 팬텀 사진관 대표



▪ **제목 :** 내마음2



- **작가소개 :** 이시우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별빛 느낌 빌리지 대표



▪ **제목 :** 사색



- 작가소개 : 신원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지회장 역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달서구지부장 역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대회지도위원 심사 (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 (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대회 (공모전)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상 다수
- 신원재 초대작가 개인전 전시회 6회
- 차밍 스튜디오 대표



▪ 제목 : 포즈



▪ 제목 : 포즈



- 작가소개 : 박재온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온미디어 대표



▪ 제목 : 여심



- 작가소개 : 안규석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고문
- 안규석 스튜디오 대표



▪ 제 목 : 고택의봄

▪ 작가소개 : 심준섭 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심사위원장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위원장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제 목 : 영취산의 봄

▪ 작가이력 :

- 여수시 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상
- 한국사진대전 입선 전라남도전 입선
- 한국해양재단 사진대전 대상
- 2024 여수관광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제 목 : 현충사 흥 매화도 I

▪ 작가소개 : 윤종성 작가

- (사)대한기독교사진협회 이사장역임(고문)
- 現(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 現(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現(사)한국사진작가협회 동작구지부 부 지부장
- 現(사)한국환경사진협회 회장
- 現스튜디오윤 대표



▪ 제 목 : 현충사 흥 매화도 II

▪ 작가이력 :

- 2024,한화 불꽃축제 사진(대상)
- 2024,영등포제 1회 사진공모전(금상)
- 2024,여주생태사진 공모전(동상)



▪ 제 목 : 광양 매화마을 봄소식 I

▪ 작가소개 : 이용일 작가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천시 지부장 역임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라남도 지회장 역임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교류 이사 역임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문화원 이사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39대 협회 감사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0298호 초대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 자문



▪ 제 목 : 광양 매화마을 봄소식 II



▪ 제 목 : 야경 I

▪ 작가소개 : 이화춘 작가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현)
-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현)



▪ 제 목 : 야경 II

歷代 理事長님들의 2026년 메시지

글: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1972년 1월 영사뉴스 會報

1972년 1월호(당시 영사뉴스) 15~17페이지에 당시 이사장님들의 근황이 담긴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본다. 필자가 태어난 1972년에 기고된 글을 보면서 묘한 감정과 역사성을 느낀 글이다. 본문의 일부분과 필자의 상상력으로 선배 이사장님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본다. 글 아랫부분에는 당시에 실린 원문을 첨부하니 참조하길 바란다.

4대 김영상 고문 : "PR은 기술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입니다"

"명동 스튜디오를 찾아오던 손님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2026년의 후배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알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화려한 광고보다 무서운 것은 '사진 한 장에 담긴 성실함'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그 아량이 곧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기교에 매몰되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찍으십시오."

6대 이석봉 고문 :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실천하는 예술인'입니다"

"을지로 로터리에서 네온사인을 켜고 밤낮없이 고민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요즘 사진값이 예전만 못하고 시가 사진을 대신 만든다는 걱정이 많더군요. 그러나 기계는 '예술가의 긍지'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멍가게식 장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정당한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실력을 갖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진사가 되십시오."

7대 송생남 고문 : "협회라는 울타리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사동 사진예술원을 운영하며 제가 꿈꿨던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든 '협회 회관'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프로들이 뭉쳐야 합니다. 회비를 아까워 말고 협회 활동에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단결할 때 비로소 국가도, 사회도 프로 사진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8대 고병일 고문 : "사이비가 아닌 '진짜'가 살아남는 질서를 만드십시오."

"원효로에서 개를 키우며 자연과 벗 삼던 시절, 저는 늘 '사진계의 질서'를 생각했습니다. 등록제가 정착되어야 사이버 사진사가 도태되고 진짜 예술가가 대접받는 법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진 실명제와 저작권 수호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후배들이 품위 있는 작품으로 신뢰를 얻을 때, 사진계의 질서는 비로소 바로잡힐 것입니다."

1972년 1월 영사뉴스 會報 原文

“歷代 理事長님들의 至今하고 있는 事業과 앞으로의 포부를 타진해 본다.
後輩에게 그리고 協會에 하고 싶은 말은”

4대 金永尙(김영상)先生

明洞入口(명동입구)에 아담하게 꾸며진 明洞(명동) PHOTO STUDIO로 先生을 訪問(방문)했다. 寫眞(사진)에 關(관)한 外國書籍(외국서적)을 읽고 계시다. 친절히 맞아 주신다.

요즘 어떻게 消日(소일) 하십니까? 아침 일찍 散策(산책)이나 하고 집에서 탁구도 치며 寫眞館(사진관)에 나와서는 先後輩(선후배) 寫眞人(사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위치가 명동 입구가 돼서 많이들 들려주시니까. 그리고 틈틈이 사진에 관한 책을 읽지

- ※ 후배 사진인들에게 굳이 말한다면 써-비스정신을 가져야 하며 손님들이 사진에 대한 과제력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연구노력 여하에 손님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P.R은 과장하지 않아도 성실히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P.R에 첩경이야.
- ※ 협회는 몇 사람이라도 단결하여 올케 운영하고 참여한 사람은 참여 안 한 사람보다 난점이 있어야 하고 서로 연구해서 발전해야 하며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일해야지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께서 남은 가격이나마 후배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해야 하지 않겠어?
- ※ 앞으로 학원이나 하나 설립해서 사진계에 공헌하고 싶으면 매스컴이라도 하나 경영해 봤으면 해
- ※ 김영상 이사장님은 사진경력 20년 55세이며, 가정은 3형제 중 장남은 농협 그리고 차남은 주부생활사에 삼남은 중학교에 다니며 행복하시다.

6대 李石鳳(이석봉)先生

을지로 6가 로타리 동쪽으로 계림 사장이란 네온싸인이 크게 눈에 뜨인다. 기자가 방문하자 유지 몇 분과 같이 동 사업에 관해 뒷인가 진지하게 의논하고 계시다 반가이 맞는다. 물론 선생은 으레 전부터 을지로 널리 신원을 맡고 있으며 또한 동리 일에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한다고 들은 바 있다. 찾아온 뜻을 전하자, 뭐 아침 일찍 일어나 동리를 한 바퀴 돌며 동리분들을 고루 만나보지 그리고는 사진관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사진관엔 언제나 주인이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히 봉사해야 해. 주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써-비스가 결여되게 마련이야! 그리고 작업한 사진을 일일이 검토하고 확인

한 후라야 손님에게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거야.

- ※ 뭐 후배들에게 말하라고 하나 할 말이 있는지 부탁한다면 사진인의 긍지를 살리자는 거다. 진실성 있는 사진사가 되자는 거지 정성을 들여 만든 사진으로 정당한 값을 받자는 거야. 예술을 망각하고 구멍가게식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 비단 내 생각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을 줄 알고 있으나 실천이 문제지. 우리는 실천할 줄 아는 예술인이 돼야 하지.
- ※ 협회는 그저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지 돼. 노경식 이사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방관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회비를 내서 뒷받침해야지
- ※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라면 사진을 천직으로 삼고 사진의 대가가 되고 싶을 뿐이야... 선생의 말속에 자신이 넘친다...
- ※ 이석봉 이사장님은 사진역사 20년 49세에 가정은 3남 2녀 장남은 군에 복무 중이며 행복한 가정이다.

7대 宋生南(송생남)先生

3.1로에서 인사동 입구를 바라보면 사진예술원이라고 붙은 간판이 유독 크게 눈에 띈다. 기자가 방문하자 예술사진 작품을 쇼파에 많이 싸놓고 면밀히 검사를 하시다 말고 품에 있는 답례로 맞아주신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 일찍 산책하지, 그리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평일에는 오전 중엔 여기 나오지! 오후 시간에는 마포에 분점, 다음은 행복예식장에 들러 작업 감독을 하니 그리고 주례를 서는 날도 많이 있어. 특히 사진계 후배들이 주례를 서달라고 오는 경향이 많치.

- ※ 뭐 후배들에게 말해 달라고 하면 우선 걱정이 돼 영업 사진이 날로 침해되어 가고 있으니 말이야 오히려 아마추어들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예술인을 자칭하는 우리가 퇴보해서 되겠어? 이는 모두 연구력이 부족한 데 있는 거야.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하루속히 탈피해야 돼. 그래서 좋은 작품을 손님에게 자신을 가지고 내놔야 하지. 이 길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야.
- ※ 그리고 협회에 바란다면 자나 깨나 회관을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야 전국 회원이 합심 단결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전국 회원이 들고일어나 1, 2년만 다 같이 노력해 봐. 문제가 안 돼 우선 중앙에서부터 크게 캠페인을 벌이는 거야.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염원이야.
- ※ 글세 곳 사진예술 학원을 만들 예정이지 즉 품위 있는 학원을 꼭 세워서 진실하고 품위 있는 사진사를 양성할 작정이고 겸해서 사진 잡지도 한번 내보겠어! 선생은 힘주어 말한다. 그리고 기자에게 유능한 강사님들을 알선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 ※ 송생남 이사장님은 사진경력 20년 55세 2남 2녀 중 장남은 공군에 복무 중이며 다복한 가정이다.

8대 高炳一(고병일)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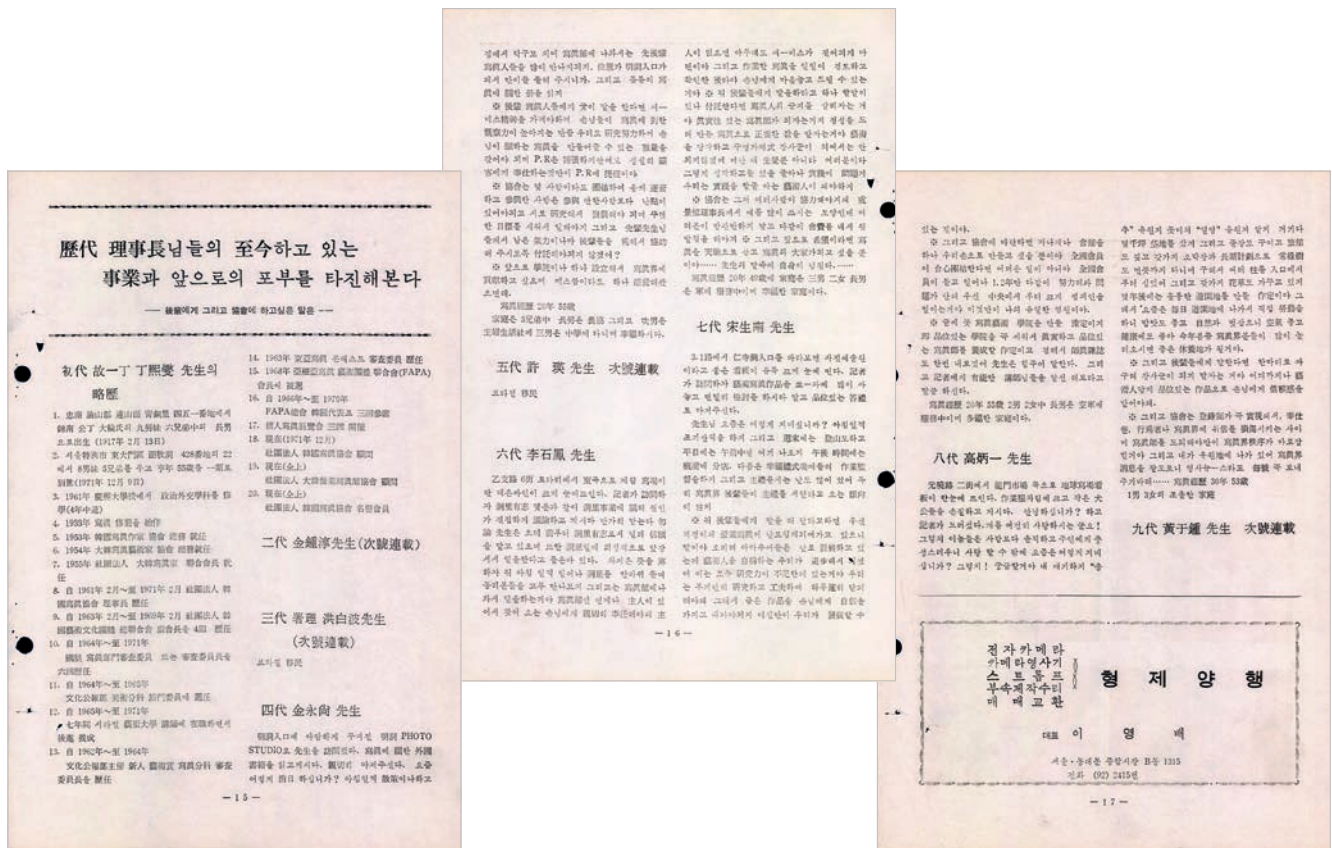
원효로 2가에서 용문시장 쪽으로 지구사장 간판이 한눈에 뜨인다. 작업복 차림에 크고 작은 견공들을 손질하고 계시다. 안녕하세요? 하고 기자가 들어섰다. 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치 이놈들은 사람보다 솔깃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우니 사랑할 수밖에.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지! 궁금할거야. 내 얘기 하지 “송추” 유원지 못미처 “일영” 유원지 알지 거기다 몇천 평 대지를 샀지. 그리고 풀장도 꾸미고 여관도 짓고 갖가지 오락장과 장기 계획으로 상록수도 먼 곳까지 다니며 구해서 여러 주를 입구에서부터 심었어. 그리고 갖가지 화초도 가꾸고 있지 몇 년 후에는 훌륭한 유원지를 만들 작정이야. 그래서 요즘은 매일 유원지에 나가서 직접 노동을 하니 밥맛도 좋고 자연과 벗 삼으니 공기 좋고 건강에도 좋아 올해 봄쯤 사진계 분들 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은 휴양지가 될 거야.

※ 그리고 후배들에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싸구려 장사꾼이 되지 말자는 거야 어디까지나 예술인답게 품위 있는 작품으로 손님에게 신뢰감을 받아야 해.

※ 그리고 협회는 등록제가 꼭 돼서 봉사권, 행위자나 사진계에 위신을 손상하는 사이버 사진사를 도태해야만 사진계 질서가 바로잡힐 거야. 그리고 내가 유원지에 나가 있어 사진계 소식을 잘 모르니 영사 뉴스라도 매호 꼭 보내 주기 바래

※ 사진경력 30년 53세 1남 3녀의 조출한 가정



한국인상사진연구회 (韓國人像寫眞研究會)

2004년 1월 창립하여 현재까지 20년 넘게 이어져...

글 : 한국인상사진연구회 제10대 회장 이경희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전국에서 인상사진의 열정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인상사진 연구와 친목과 우정을 나누며 회원 간의 유익한 사진정보 교환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매월 열리는 월례회에는 작품심사와 사진교육을 통해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품평과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사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회원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연구로 회원들은 실력을 갈고닦아 2년에 한 번 씩 “인상사진회원전” 통해 사진 선후배 여러분의 조언과 지도를 받고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본 연구회는 수준 높은 인상 사진을 통해 미력하나마 모든 사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정통 인상사진의 맥을 잇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다.

제10대 이경희 회장은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진인으로서 회원 간의 친목과 우정을 나누며 수준 높은 인상사진 발전과 사진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회와 뜻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누구에게나 동참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한다.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初代 장경환 회장으로 시작하여 제2대 장경환 회장, 제3대 류기혁 회장, 제4대 정우섭 회장, 제5대 정우섭 회장, 제6대 김천식 회장, 제7대 유홍근 회장, 제8대 최봉순 회장, 제9대 호준진 회장, 제10대 이경희 회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본 협회 회보인 寫檀 2006년 6월 실린 내용이다.



연구회의 창립배경과 목적

사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넘치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국 인상사진의 질적 수준과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 노력하는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정통 인상 사진을 연구하고 사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우리나라의 정통 인상사진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17일 창립되었다.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연구모임이다.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기 이전부터 120밀리 중형 카메라가 유행하고 정통 인상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새로운 각오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섰다.

연구회의 주요 활동(월례회 및 작품연구)

매월 실시하는 정례 월례회를 기본 바탕으로 사진계의 전반적인 소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사진에 대한 연구와 회원들의 작품을 전 회원의 참여 속에 투표하여 월별 '그랑프리'를 발표한다. 이어서 작품의 품평을 실시하여 회원들 간의 원활한 토론으로 작품에 대한 장단점과 보완방안을 논의하며, 회원 간의 노하우와 작품을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상호 토론의 장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정환 회장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지적은 회원들의 작품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더욱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작품 연구에 이어진 조명교육과 포즈연구는 회원들의 실무경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조명설치와 포즈 및 촬영을 체험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력을 배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촬영대회

연 2회 실시하는 촬영대회는 국내 연수대회를 병행하여 회원들 간의 단합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원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MT 형식의 집중적인 교육으로 딱딱한 회의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연구회 회원전

현재는 디지털의 급속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도 사진을 접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고급 사진의 인식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인상사진연구회는 수준 높은 인상 사진을 일반인은 물론 사진인들에게까지 선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회원 모두가 사진기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

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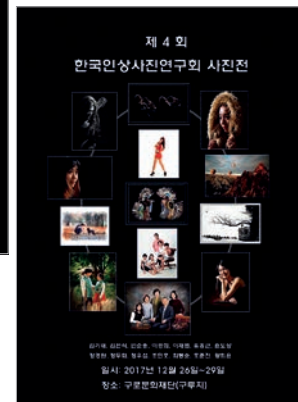
연구회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회원전은 2년에 한 번씩 회장 재임 기간에 실시되는 작품전시회로 개최하는데, 회원들이 2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공개하는 회원전이다. 회원전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사진의 현주소와 인상사진의 표현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한 획을 그으며 회원들의 기량이 다양한 소재와 작가의 특성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된다.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충무로에 있는 후지포토 살롱에서 제1회 한국인상사진연구회 회원전을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2007년 4월에 제2회 회원전을 가질 예정이다.

해외연수

회원작품 전시회 이후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해외연수는 2년에 1번씩 진행된다. 2005년 9월 5일~9일까지 진행된 연수는 중국 상해 - 장가계 - 원가계 - 황룡동굴 - 의탄강 야경으로 이어지는 5일간의 여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 견학을 통하여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견문을 넓히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

스튜디오 견학

매월 회원들은 스튜디오 견학을 통하여 인상사진 분야의 다양한 스튜디오 인테리어 및 사업 아이템, 스튜디오의 운영과 마케팅, 촬영 노하우, 회원들의 경험을 함께 토의하고 스튜디오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스튜디오 견학은 회원들의 공감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피부에 와 닿는 산교육으로 진행된다.





천우철 경남지회장

왜 당신의 진심은 매번 오해받을까?

소통의 숨겨진 엔진을 해부하다

글: 천우철 경남지회장

1. 5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깊은 진심을 위해 5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준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성스럽게 고른 그 귀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조심스레 건네는 대신, 야구 투수처럼 상대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진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그 선물을 고맙게 받기는커녕, 위협을 느끼고 경찰을 부르지도 모릅니다.

시계라는 선물 자체는 훌륭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소통의 비극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메시지의 내용물, 즉 '무슨 말을 할까'에만 골몰하느라 그 말이 상대에게 닿기까지의 역학 관계와 전달 방식에는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소통의 기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치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도록 배려하는 '관계의 철학'이어야 합니다.

2. 첫 번째 통찰: 초코 우유와 택배 기사, 그리고 '채널'의 중요성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초코 우유' 한 개를 건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우유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우유를 미소와 함께 직접 전하느냐, 아니면 귀찮은 듯 책상 위로 툭 던지느냐에 따라 수신자가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채널(Channel)'입니다. 채널은 단순히 메시지가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메시지의 영혼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래?"라며 억울해 하지만, 사실 대참사의 원인은 잘못된 채널 선택에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예민한 메시지를 텍스트라는 건조하고 얇은 대역폭의 채널(단체 카톡, 이메일)에 억지로 구겨 넣을 때, 소통에는 거대한 마찰이 발생합니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배송 기사님이 막 문을 발로 차고 박스를 툭 던져 놓고 가면 그 경험 전체가 불쾌해지잖아요.

채널이 메시지를 압도하는 순간인 거죠." 결국 메시지의 품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굴러가는 전달 경로의 질감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같은 물도 성수가 되거나 독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두 번째 통찰 : 보이지 않는 장벽, '내적 잡음'과 '컨텍스트'의 역습

좋은 채널을 선택했음에도 대화가 엇갈린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장벽인 '잡음(Noise)'과 '컨텍스트(Context)'를 살펴야 합니다. 물리적인 소음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진행되는 '내적 잡음'입니다.

상대가 중요한 비즈니스 제안을 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배우자와 다툰 일로 불안과 스트레스에 빠져 있다면 그 내적 소음이 모든 메시지를 튕겨냅니다.

또한, 전문 용어나 은어를 남발하여 생기는 '의미적 잡음'은 지식의 격차를 만들어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이 요소는 '컨텍스트'입니다.

이는 대화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감정적 배경을 의미합니다. 평소 직원을 괴롭히던 상사가 구조 조정 소문이 도는 날 갑자기 다가와 "요즘 참 열심히 하네"라고 칭찬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은 순수한 칭찬이 아니라 해고를 앞둔 '사형 선고'처럼 들릴 것입니다. 텍스트는 칭찬이었지만, 관계의 역사와 분위기라는 컨텍스트가 메시지를 끔찍한 위협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망가진 컨텍스트 속에서 말솜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독가스가 가득 찬 방에서 맑은 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텍스트를 고칠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환대'와 '공간의 환기'를 통해 컨텍스트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4. 세 번째 통찰 : 대화는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맹렬한 탁구 랠리'다

인류는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모델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과거의 '단선형 모델'이 라디오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교류 모델'은 공수십 개가 동시에 날아다니는 맹렬한 '탁구 랠리'와 같습니다.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두 사람은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권위적인 상사가 회의실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사는 자신이 '단선형 방송'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팀원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팔짱을 끼는 비언어적 피드백을 통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맹렬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3P 분석'의 관점입니다.

청중(People)의 심리 상태와 장소(Place)의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자신의 목적(Purpose)만을 일방적으로 투사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지르는 잡음에 불과합니다. 상대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결여된 대화는 랠리가 멈춘 죽은 소통입니다.

5. 네 번째 통찰 : 메라비언의 법칙, 93%는 7%를 위한 '고속도로'다

설득의 순간, 우리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메시지 전달에서 언어적 내용(텍스트)은 겨우 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38%)과 표정, 제스처 같은 시각적 요소(55%)입니다.

이 법칙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93%의 비언어적 요소가 소통의 잡음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컨텍스트를 형성하는 '전략적 인프라'라는 뜻입니다.

발표자의 당당한 미소와 안정된 목소리는 7%의 핵심 메시지를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닦아놓는 튼튼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7%의 화물 역시 정교해야 합니다. 초코 우유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나열하는 것과 같은 '소재의 나열'은 청중에게 피로감만 줍니다.

대신, 논리적인 OBC(Opening-Body-Closing) 구조를 갖추어 청중의 가슴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제'를 꽂아야 합니다. 튼튼한 비언어적 고속도로(93%)와 논리

적인 메시지 구조(7%)가 결합될 때, 소통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6. 결론 : 시와의 대화,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채널의 질감, 잡음의 장벽, 컨텍스트의 지배력, 그리고 실시간 교류의 역학을 통해 소통의 엔진을 분해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투시하는 '엑스레이 안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표면적인 말 뒤에 숨겨진 토피 바퀴들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영혼이 담긴 '진정한 교류'에 더 목말라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생성형 시와 매끄러운 랠리를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육체가 없는 기계와의 대화가 과연 우리가 꿈꾸는 소통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데이터를 정교하게 짜깁기해 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메아리'에 불과할까요? 기술이 채울 수 없는 소통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와 현대의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내일 당신의 대화창에서는 어떤 컨텍스트가 흐르고 있나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1.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 교육 지도사 수험 교재』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잡음, 교류 모델 참조)
2. 조소영, 『프리젠테이션 기획 및 제작』 강의계획서 및 교안 (미디어 콘텐츠와 전공 과정)
3. 이만하, 『프리젠테이션의 비밀』, 책과나무(2026)
1. 김용한, 『국비공모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의 기술』, 작가와(2026)